

## 사순절 (Lent)

임성진 총장

우리말로 사순(四旬)은 40 일을 말하며, 사순절(四旬節)은 40 일간을 기념하는 절기란 뜻이다. 부활주일로부터 거슬러 계산하여 중간에 있는 여섯번의 주일을 뺀 40 일 동안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을 말한다. 성경에서 40 이란 숫자는 여러 의미를 지니고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모세의 40 일간 시내산에서의 금식, 이스라엘의 40 년간의 광야생활, 예수님의 40 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후 승천까지의 40 일 등에서 알 수 있듯이 40 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갱신의 상징으로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수난 속에 담긴 구속사적 의미를 생각하며 신앙을 재각성하고자 경건과 절제의 시간을 갖는 것이 사순절 기간인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주일을 앞두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내어주신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준비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금식을 행하였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며 금식하였던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새롭게 해석하여 주님께서 베푸신 성찬식에 앞서 금식을 행한 것이다. 금식이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관습으로 행해져오는 이유이다. 오늘날도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속의 은혜를 기리고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금식기도를 드린다.

사순절의 첫날을 '재의 수요일' (Ash Wednesday)이라 부르는데 이 날에는 종려나무를 태운 재 혹은 숫으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는 풍습이 전해진다. 재는 새생명을 위한 밀거름, 참회, 유한성, 정화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날을 통해 인간의 죄와 유한성 그리고 인생의 무상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것을 깨우치는 것이다. 이 날의 재는 1년 전 종려주일에 사용했던 종려가지를 태워 만드는데 이는 자신을 온전히 태우는 헌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로 준비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순절 기간에는 또한 이웃을 향한 구제와 선행이 행해진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절제와 금식을 통해 자신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웃의 어려움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자선을 행하는 것이다. 올해는 3월 6일 재의 수요일로부터 시작하여 4월 20일 성토요일까지 사순절이 이어진다. 이 기간에 성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함으로 믿음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사순절의 경건과 고난을 통해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